

장백산천지

제 198 호

2011년 9월 16일

금요일

세계각지 파룬궁학원들이 추석에 사부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다

2011년 추석을 맞이하여 세계각지 파룬궁학원들이 특히 중국 대륙 각 정부기관, 군대, 무장경찰부대, 사법계통, 교육계통 등 각 항업의 파룬궁학원들이 각종 방식으로 인터넷방송을 돌파하여 명혜망에 정미로운 축하장, 동화, 시사 등을 보내어 리홍지사부님의 은혜에 감사와 경의를 표달했으며 예전처럼 민중에게 파룬궁진상과 파룬따파가 좋다는 것을 설명하여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표시했다. 파룬따파명혜망은 지난 9월 12일에 중국대륙 각 지역 파룬궁학원들의 축하장과 축사를 5천여가지를 실었다. 파룬따파는 리홍지선생님께서 1992년 5월에 전수한 불가상승수련대법으로서 찌싼런을 근본지



의지할곳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산동래동 파룬따파제가 사부님의 자비로운 구도에 감사를 드린 축하장.

도로 삼고 동시에 5조공법을 련마하며 중국대륙에서 “사람이 사람을 전하고 마음으로 마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정부의 고급관리로부터 보통민중에 이르기까지 각 계층인사들을 흡인했다.

억만 사람들의 수련실천이 증명하다시피 파룬따파는 진정으로 수련하는 사람들을 고층차로 이끌뿐만 아니라 사회를 온정시키고

사람들의 신체소질과 도덕수준을 제고하는데 헤아릴수 없는 정면작용을 일으켰다. 목전 파룬궁은 이미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 전파되었고 1억이 넘는 사람들이 수련하고 있다. 중국대륙은 물론 대만 300여개 도시와 읍의 1000여개 련공지점에서 약 70만명의 학원들이 수련하고 있다.

스페인 수도 중심에서 파룬궁학원들 집체련공을 했다



지난 9월 3일, 스페인 파룬궁학원들이 수도 마드리드 카야오광장에서 집체련공을 하고 (윗사진) 진상을 이야기했다. 수많은 유람객과 시민들이 빼곡히 에워싸서 관람하면서 끊임없이 사진을 찍고 록화했다.

모스크바도시일에 파룬궁학원들 표창을 받다

지난 9월 3일, 모스크바 도시일 활동에 참가한 파룬궁학원들이 5조공법을 전시하고 동방의



고전무용을 공연했으며 파룬궁진상을 이야기했다. 모스크바 시장 트웰은 모스크바 파룬궁학원들에게 충심으로 되는 축복과 감사를 표시하고 나서 상장을 수여했다. (윗사진)

한국정부에서 파룬궁학원 송환을 정지하라



중공이 대구 목적으로 파룬궁을 참혹하게 박해한 이래 일부 파룬궁학원들은 박해를 피하기 위해 한국으로 왔다. 목전, 파룬궁학원 1 명이 법률소송을 통해 한국난민 자격을 얻은외에 기타 파룬궁학원

들의 난민신청은 죄다 인정을 받지 못했다. 한국 정부는 난민자격을 얻지 못한 파룬궁학원 10 명을 중국으로 송환시켰다.

지난 9 월 6 일, 한국법무부서울출입구관리 사무소 사업일꾼들이 파룬궁학원 김씨집에 뛰쳐들어 그들 부부를 체포했다.

유럽의회 의원 로저 헬멀은 공개서한을 써서 한국주재 영국대사 추규 호에게 보내어 한국정부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파룬궁학원들을 송환하는 것을 정지하라고 호소했다.

홍콩정부는 민중들의 언론자유를 침범할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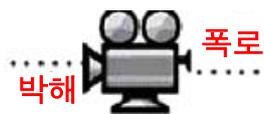
지난 9 월 1 일부터 8 일까지 홍콩정부는 파룬궁진상지점에 전시한 프랑카드와 전람판을 즉시 뜯어버려라는 통지를 내렸다.(윗사진) 이것은 홍콩정부가 중공에게 아첨하는 행위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50 년동안 불변한다는 “일국량제”에 대해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특별구역 홍콩정부는 중공의 괴뢰가 되어서는 안되며 홍콩민중의 언론자유를 절대 침범할수 없다.



파룬궁학원 류효화는 아무 죄도 없다

지난 8 월 30 일 오전 8 시경, 길림성도문시 법원에서 파룬궁학원 류효화(刘晓华)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법정을 개정했다. 법정에서 류효화는 자신을 위해 변호했으며 공소인이 제기한 “죄증”에 대해 부정하고 국보대대 악경들의 잔인한 폭행에 대해 폭로했다.

지난 3 월 4 일, 국보대대 악경들은 류효화를 랍치한후, 4 일동안 자지 못하게 했으며 손가락으로 그의 두눈을 찔렀고 광천수병으로 머리를 마구 때렸으며 라이타불로 손가락을 태웠고 담배불로 손을 지졌다. 공소인은 “법률소란실시죄”로 류효화를 3 년이상, 7 년이하의 유기도형에 언도하려고 시도했다. 류효화는 법정에서 자신은 아무 죄도 없다고 제출했다. 나중에 심판장은 그러러 자신을 위해 마지막 변호를 하라고 했다. 류효화는 자기가 파룬따파를 수련한후 심신이 전변되었다고 말하자 경찰은 그의 손에서 원고를 빼앗아갔고 심판장은 류효화가 말한것은 변호내용과 관계없다고 말했다. 최후에 심판장은 “후날에 다시 심의한다.”고 선포했다. 이튿날 가족이 법관에게 전화를 걸어 어느날에 재심사하는가고 물으니 법관은 “후날에 다시 심의한다”고 말한 것을 부인하고 이미 심사가 끝나서 이 안건을 성에 보내어 통지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그런데 오늘까지 류효화는 여전히 도문시간수소에 갇혀있다.



연변박해소식

- 지난 8 월 17 일 아침 6 시경, 백하림업국 공안국 두 악경이 파룬궁학원 리락우(李乐友)를 랍치하여 백하구류소에 가두고 박해를 하고 있다.
- 지난 9 월 19 일 오전 10 시, 조양천파룬궁학원 왕염(王艳)은 연변주공안국 악경들에게 랍치되었고 대법책과 진상자료, 컴퓨터 등을 몰수당했다.
- 지난 9 월 19 일, 연길시파룬궁학원 최복자(崔福子)는 신흥파출소 악경들에게 랍치되었다

선악에는 보응이 있는 법이다. 파룬따파를 적대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즉각 박해를 멈추고 자신의 생명을 확보하기 바란다.

